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 참고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8.5.14.(월) 12:00부터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진창(02-2100-2830)	담당자	윤덕기 사무관(02-2100-2835) 이은진 사무관(02-2100-2836)	
	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김기한(02-2100-2990)		양병권 사무관(02-2100-2992)	
	금융위 보험과장 하주식(02-2100-2960)		현지은 사무관(02-2100-2964)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진석(02-3145-8020)		김부곤 팀장(02-3145-8040)	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이창욱(02-3145-7460)		이준교 팀장(02-3145-7455)	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태경(02-3145-6770)		박형근 팀장(02-3145-6773)	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동궁(02-3145-7550)		정용걸 팀장(02-3145-7447)	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양진호(02-3145-8070)		이길성 팀장(02-3145-8072)	

제 목 : 2018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
- 금년 4월중 **소금융권***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**+7.3조원**으로 전년 동월(+7.3조원)과 비슷한 수준
 - * 금융감독원 감독·검사대상(은행, 보험사, 상호금융, 저축은행, 여전사) + 새마을금고
- 은행권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폭이 **+0.5조** 확대되었으나, 제2금융권의 경우 **△0.4조원** 감소
(은행 +4.6조원→+5.1조원, 제2금융권 +2.6조원→+2.2조원)
- '18년 1~4월중 증가규모는 **+20.6조원**으로 전년 동기(+225조원) 대비 **△1.9조원** 축소(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92% 수준)

1 '18. 4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

- (개 요) '18년 4월중 소금융권 가계대출은 **+7.3조원** 증가하여 전월(+5.0조원) 대비 **+2.3조원** 확대되었으나, 전년 동월(+7.3조원)과는 비슷한 수준
 - '18년 1~4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**+20.6조원**으로 전년동기(+225조원) 대비 **△1.9조원** 축소되었으며, 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감소한 데 기인(+11.9조원 → +6.0조원, △5.9조원)
- (은행권) '18년 4월중 증가규모는 **+5.1조원**으로, 전월(+4.3조원) 및 전년 동월(+4.6조원) 대비 각각 **+0.8조원**, **+0.5조원** 증가
 - (주담대 : **+2.4조원**) 증가폭이 전월(+2.8조원) 대비 **△0.4조원** 축소되었으며, 전년 동월(+3.3조원) 대비로도 **△0.9조원** 감소
 - * 은행권 개별대출(주금공 양도포함) 증감(조원) : ('18.3월) +2.0 → (4월) +1.4
 - **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(조원) : ('18.3월) +0.8 → (4월) +1.0
 - (기타대출 : **+2.7조원**)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*되어 전월(+1.5조원) 대비 **+1.2조원**, 전년 동월(+1.3조원) 대비 **+1.4조원** 증가
 - *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(조원) : ('17.1Q) △0.5 → ('17.2Q) +3.9 → ('17.3Q) +4.8 → ('17.4Q) +5.8 → ('18.1Q) +1.7 → ('18.4월) +1.4
- (제2금융권) '18년 4월중 **+2.2조원** 증가하여 전월(+0.7조원) 대비 **+1.5조원** 확대되었으며, 전년 동월(+2.6조원) 대비로는 **감소(△0.4조원)**
 - ① (상호금융) '18.4월중 **+0.8조원** 증가하여 전월(△0.0조원)대비 증가폭이 확대(+0.8조원)되었으나, 전년 동월(+1.9조원) 대비 **감소(△1.1조원)**
 - * 상호금융 주담대 증감(조원) : ('17.1Q) +4.2 → ('17.2Q) +3.2 → ('17.3Q) +1.7 → ('17.4Q) +1.4 → ('18.1Q) △0.5 → ('18.4월) △0.1

2 | 평가 및 향후계획

② (보 험) '18.4월중 증가액은 +0.4조원으로 보험계약대출(+0.4조원) 중심으로 증가

- 증가규모가 전월(+0.1조원) 대비 확대(+0.3조원)되었으며, 전년 동월(+0.3조원) 대비로도 소폭 확대(+0.1조원)

③ (저축은행) '18.4월중 기타대출(+0.18조원)을 중심으로 +0.3조원 증가하여 전월(+0.1조원)대비 증가폭이 확대(+0.2조원)되었으며, 전년 동월(+0.3조원)과는 비슷한 수준

④ (여전사) '18.4월중 카드대출(+0.3조원)을 중심으로 +0.7조원 증가하여 전월(+0.6조원)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(+0.1조원), 전년 동월(+0.2조원) 대비 증가규모는 다소 크게 확대(+0.5조원)

< 가계대출 증감 추이 (금감원 속보치 기준) >

(단위 : 조원)

	'16년 (1~4월)			'17년 (1~4월)			'18년 (1~4월)		
	3월	4월	4월	3월	4월	4월	3월	4월	
은행	+15.1	+4.9	+5.2	+10.6	+3.0	+4.6	+14.6	+4.3	+5.1
제2금융권	+11.8	+3.3	+3.8	+11.9	+2.5	+2.6	+6.0	+0.7	+2.2
상호금융	+6.8	+2.1	+2.6	+7.6	+1.9	+1.9	+0.6	△0.0	+0.8
신협	+0.92	+0.30	+0.23	+0.53	+0.07	+0.12	△1.11	△0.35	△0.20
농협	+3.60	+1.10	+1.47	+3.36	+0.89	+0.70	+1.50	+0.34	+0.90
수협	+0.02	+0.05	△0.02	+0.12	+0.04	+0.06	△0.23	△0.06	△0.08
산림	+0.07	+0.02	+0.04	+0.17	+0.04	+0.05	+0.20	+0.05	+0.07
새마을금고	+2.14	+0.62	+0.83	+3.46	+0.87	+0.93	+0.23	△0.04	+0.07
보험	+1.8	+0.3	+0.4	+1.6	+0.1	+0.3	+1.5	+0.1	+0.4
저축은행	+1.7	+0.5	+0.4	+1.4	+0.1	+0.3	+0.7	+0.1	+0.3
여전사	+1.5	+0.4	+0.4	+1.2	+0.4	+0.2	+3.2	+0.6	+0.7
소금융권합계	+26.8	+8.2	+9.0	+22.5	+5.5	+7.3	+20.6	+5.0	+7.3

주 :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,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'18.4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(+7.3조원)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나, 주담대가 축소되고 기타대출이 확대되는 모습*

* 소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감 : ('17.4월) +4.7조원 → ('18.4월) +2.4조원
 소 금융권 기타대출 증감 : ('17.4월) +2.6조원 → ('18.4월) +4.9조원

○ 소 금융권 기타대출의 증가규모 확대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수요, 보험계약대출, 카드론 등 2금융권 영업 확대, 주식시장 투자 수요*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

* [참고] 증권사 신용거래용자 잔액추이(단위 : 조원) : ('17.4월) 8.5 ('17.12월) 9.9 ('18.4월) 12.2

○ 한편, '18년 1~4월중 증가규모(+20.6조원)는 '15~'17년 동기간 중 최저수준*으로, 누적 증가세는 둔화되는 경향

* ('15.1~4월) : +22.1 → ('16.1~4월) : +26.8 → ('17.1~4월) : +22.5 (단위 : 조원)

□ 현재 가계대출은 연간 대출관리 목표(장기추세치 8.2%) 내에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일부대출의 증가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필요

○ 금월중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(5.23일, 잠정)하여 업권별 가계부채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집중점검하고,

○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별·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

□ 또한,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既 발표한 '18년 가계부채 관리방안('18.4.16일) 후속조치* 등을 차질 없이 추진

* 은행권 예대를 규제 개선(5월중 규정변경예고), 2금융권 DSR 시범운영(7월~),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(저축은행, 여전 / 10월) 등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넓게 들었습니다
 바르게 알려겠습니다